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이 결성되어 70년.

일본에서의 조선류학생들의 력사가 시작되어 100여년.

이 장구한 기간 재일조선류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견지하여 진리의 탐구와 량심의 실천의 자세로 유구한 민족사의 전진에 훌륭히 이바지하여왔습니다.

일제식민지시기에는 그 부당한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재일조선류학생들이 목숨바쳐 투쟁하였으며 1945년에 조국이 해방된 이후는 조선학생동맹을 결성하여 새 조국건설과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는 공화국지지를 명백히 하여 조국과 민족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총련이 결성된 1955년에는 조직을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으로 개편하여 공화국의 해외류학생으로서의 립장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류학동은 70년동안 조국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국의 부강번영,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왔으며 민족성을 잃은 수많은 동포학생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존엄을 되찾아왔습니다.

재일조선류학생들의 100년사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워온 참으로 긍지높은 력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와 독립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있습니다.

대국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전근대적인 세계질서는 지구상에 아직도 굳건히 살아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사의 풍요로운 발전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고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갈라지고 1950년부터의 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된 후 7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조선반도는 38도선이란 높은 벽으로 둘로 갈라져있으며 친미친일세력은 아직도 그 힘을 상실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주체와 자주를 곧바로 추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국들은 어떻게 하나 무너뜨리려고 온갖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처지른 과거를 청산하기는커녕 일본의 근현대사의 산《증인》인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하나 없애버려고 온갖 차별과 탄압을 가해왔으며 최근시기에는 력사의 망각이 가속도적으로 촉진되어 반세기전을 방불케하는 반조선인풍조가 날마다 짙어가고있습니다. 특히 조국과 더불어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재일동포들에게는 국가적이며 사회적인 탄압과 차별을 미친듯이 대고있습니다.

일본사회의 차별, 탄압과 민족의 분단상황속에서 동포학생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재일동포들은 민족적존엄을 가지지 못하고 진정한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너무나 높은 벽앞에서 하마트면 희망을 잃을뻔합니다. 가야할 길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리상은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려는 우리 리상이 결코 망상이나 환상이 아니며 그것은 백만번 정당하며 거기에 보편적인 진리가 깃들어있기때문입니다.

리상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실현이 어렵게 됩니다. 이를 반대하려고 나서는자도 많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이 닥쳐와도 마지막에는 정의가 이기고 악이 패한다는것은 인류의 고귀한 력사가 증명하고있습니다.

정의는 우리편에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속에 있습니다.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우리 조국, 우리 재일동포들은 억세계 투쟁하여왔으며 오늘도 투쟁하고있습니다.

이 고귀한 력사, 고귀한 힘만 있으면 우리는 조선민족의 진정한 해방과 독립,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우리 청년학생들이 앞장서나가겠습니다.

조국이 없는 우리 재일조선인들의 참된 삶과 존엄도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국과 더불어 목숨바쳐 투쟁하여온 재일조선류학생들의 값있고 긍지높은 력사를 고스란히 이어 조선민족의 진정한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계 싸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류학생으로서의 립장을 견지하여 그 실현을 위하여 맨 앞장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2015년 12월 19일

일본 도쿄

在日本朝鮮留學生同盟が結成され 70 年。

日本での朝鮮留學生の歴史が始まって 100 余年。

この長きに渡る歴史の中で在日朝鮮留學生たちは、學生としての本分を堅持し、真理の探求と良心の實踐の姿勢で、悠久な民族史の前進に立派に寄与してきました。

日本帝國主義による植民地時期には、その不当な支配を打倒するために数多くの留學生たちが命を賭して闘い、1945 年に祖國が解放された後には朝鮮學生同盟を結成し、新しい祖國の建設と、在日同胞の生活と權利擁護に寄与しました。

そして 1948 年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創建後は、共和國支持の立場を明確にし、祖國と民族を擁護するための闘いを展開し、総聯が結成された 1955 年には組織を在日本朝鮮留學生同盟に改編し、共和國の海外留學生としての立場を明確にしました。

留學同は 70 年もの間、祖國の温かい配慮の下で、民族の自主的平和統一と祖國の富強繁榮、在日同胞の民主主義的民族權利を擁護するために自身の本分を全うするとともに、民族性を持たずにいる数多くの同胞學生たちの民族自主意識と民族的尊嚴を取り戻してきました。

在日朝鮮留學生の 100 年史は、朝鮮民族の眞の解放と獨立のために闘ってきた、誇り高き歴史です。

しかし、朝鮮民族の完全なる自主と獨立は、21 世紀に入った今も未だ成し遂げられていません。

大國が他の國と民族を支配し、従属させる前近代的な世界秩序は地球上に未だ存在しており、これはわが民族史の豊かな發展を直接的に阻害しています。

外勢によって祖國が分斷され、1950 年からの戦争により分斷が固定化されてから 70 年もの月日が流れた今日においても朝鮮半島は、38 度線という高い壁により二つに分斷されており、親米親日勢力は今もその力を失ってはいません。

そして、朝鮮民族の主体と自主を徹底して追及す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を、大國は如何なる手を使ってでも崩壊させようと、あらゆる制裁と圧迫を加えています。

私たちが生きる日本では、自國が犯した過去を清算するどころか、日本の近現代史の生きた「証人」である在日朝鮮人の存在を消し去ろうと、あらゆる差別と弾圧を加えており、近年では歴史の忘却が加速的に進み、半世紀前を彷彿とさせる反朝鮮人風潮が日を追うごとに深まっています。特に祖國とともに自主を成し遂げようとする在日同胞には、國家的で社会的な弾圧と差別を徹底して加えています。

日本社會の差別、弾圧と、民族の分斷状況の中で、同胞學生をはじめとした少くない在日朝鮮人は、民族的尊嚴を持つことができず、眞に人間らしく生きる道を阻害されています。

あまりにも高い壁の前で、希望を失ってしまいそうになります。進むべき道がわからなくなることもあります。

しかし、私たちの理想と夢は必ず實現されるでしょう。

それは眞の解放と獨立を成し遂げようとする私たちの理想が、決して妄想や幻想ではなく、100% 正当なものであり、またそこに普遍的な眞理が込められているからです。

理想が高ければ高いほど、その實現は困難になります。それに反対しようとする勢力も数多く現れることでしょう。

しかし、あらゆる困難に直面しても、最後には正義が勝ち、悪が敗れるというのは、人類の高貴な歴史が証明しています。

正義は我々の側にあります。眞理は我々の中にあります。

あらゆる試練と難關が私たちの行く道を阻害しても、我々の祖國、我々在日同胞はこれまでも力強く闘ってきたとともに、今日も闘い続けています。

この高貴な歴史、高貴な力があれば、朝鮮民族の眞の解放と獨立、そして統一を必ず實現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の實現のための闘いに、私たち青年學生が先頭に立っていくことを固く決意します。

祖國が無ければ、我々在日朝鮮人の眞の「生」と尊嚴もありません。

私たちはこれからも、祖國と共に命を懸けて闘ってきた在日朝鮮留學生の誇り高き歴史をしっかりと受け継ぎ、朝鮮民族の眞の解放と獨立を實現するため力強く闘う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海外留學生としての立場を堅持し、その實現のために先頭に立って闘ってまいります。

私たちが夢見るその日を、一日も早く實現するために。

2015 年 12 月 19 日

日本 東京